

국제화는 '국내의 국제화' 부터

경제관료가 뽑은 경영인 이진희 삼성회장 인터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경영혁신 붐을 주도한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제관료가 본 가장 바람직한 경영인으로 선정됐다.

이 회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규제정책은 국내기업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 정부는 경쟁력집중 완화보다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에도 기업경영과 도시자본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그전까지 주위에서 나를 그룹총수 자리를 운송계 승계한 재벌2세로만 보아 안타까웠다"고 인간적 고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회장의 개인사정 때문에 서면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한국 최고 경영인으로 선정된 데 대해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히 재벌2세로서 제1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진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측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이번 세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마감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 왔다.

나는 십여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나를 그룹의 총수 자리를 운송계 승계한 재벌 2세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내 주장이 그 누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6년 전 '제2차산업'을 선언하고 삼성을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나의 결의도 이런 안타까움의 발로였다.

-삼성이 올해 재계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회장 경영철학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초일류경영이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세계를 바라보며 크게 생각하는 경영이다.

기업의 기본이란 최상의 서비스로 가장 좋게,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올해 진행되었던 해외현지회의, 질 경영선언 등은 신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은 이대로 가면 영원히 이류, 삼류로 전락해버린다는 위기의식을 다같이 공감하고, '나부터 변화한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갖도록 하는 데 애를 썼다.

따라서 신경영을 평가하기에 아직 이른 시기이며, 신경영의 실질적인 과실은 21세기에나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초일류기업의 실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94년은 신경영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삼성의 변화를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영을 가시화하겠다.

-라인스톱제와 조기출퇴근제의 기본 뜻은.

=조기출퇴근제는 시간활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찍 퇴근하면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가정에도 충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보자는 데 원래 뜻이 있는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삼성 혼자만의 변화만으로는 안된다. 기업경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것만은 한시바빠 바뀌어야 한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맞서 싸우려면, 이제는 기업 혼자서는 안된다.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국민·정부·기업이 힘을 합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기업비판이 우세하고 결국은 이것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원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보다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국민이 시장경제 및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정부 구실은 그전 1천달러, 2천달러 때와는 엄연히 다르다. 저소득시절에는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과 성장전략 그리고 각

각 중요하다. 사람의 국제화, 조직의 국제화가 요체인 셈이다.

선진화·일류화의 관문인 국제화는 가장 먼저 국내의 국제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행정과 기업이 변하고 국민 개개인과 가정생활도 국제화되고 달라져야 한다. 국제화에 앞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여론과 국민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시대에 우리 기업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또 평소 농촌·농업문제에도 관심을 비쳤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린 우리 농촌과 농업의 살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업 농업참여 길터야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로 들어섰다.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세계의 대기업들과 생존을 다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대기업규제는 국제화시대에서 요구하는 글로벌경영과 세계적인 유수 대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

기존의 농가를 기업형으로 전환시키거나 민간기업이 농업관련 기술혁신을 이루고 사업다각화에 참여토록 길을 터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확보가 농민만의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전 확충 필수적 과제

-이 회장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쳐왔는데 그 근본 뜻은.

=국제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해서는 결코 기업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으며, 외국기업 국내유치도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를 영원한 2류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값싼 에너지원을 갖는 기업이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참여 구상을 갖고 있는지.

=기업의 모든 공장이나 앞서 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전기이다. 이 전기값을 얼마

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다.

자동차산업이 이렇게 국민경제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과보호해 줌으로 인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삼성이 승용차뿐만 아니라 조선·항공 등 중공업분야에서 일대약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가장 관심을 쏟는 21세기의 성장업종은.

=세계경쟁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21세기 수출유망업종으로는 역시 반도체·정보통신 등 전자·전기분야와 조선·자동차·항공 등 기계공업 분야가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삼성도 이 두 분야를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할 일은 경쟁력집중 완화보다는 경쟁력 높이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규제정책은 국내기업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 국제경쟁력 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체제를 가급적 민간에 넘기고, 행정·세제·재정·금융 등 각 부문에 걸친 전면개혁을 단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관계는.

=평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배에 탄 같은 경제행위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꾀하는 공존공영의 동반자 내지는 상호협력적인 부부관계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처음부터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진출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자체의 인력·자금·적



정부·기업에서 가정까지 달라져야 행정규제가 초일류기업 출현 막아

다.

라인스톱제는 불량품을 절대로 소비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산 공정에서 작업자가 공정을 스톱하고 개선해나가는 자율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품질을 선행적으로 관리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회장은 지금의 상황을 구한말과 비교하면서 위기의 시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게 된 배경은.

중 규제도 필요했다. 그러나 1만달러 시대 경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이제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 경제와 경쟁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물의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떠들썩하게 외치고 있는 국제화도 사실은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에서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요즈음 들어서는 마치 국제화가 만병통치약이 돼버린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이 회장이 생각하는 국제화의 요체는.

다.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각 중진국의 물줄기를 벗어나려는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려면 정부·국민·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농민·기업의 농업에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함께 가져야 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은

나 싸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 역시 국가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에너지원의 주류를 이루었던 석유·가스는 보유자원의 한계로 아무 때고 맘대로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린라운드 추진으로 앞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공해의 가장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추가건설 계획을 좀더 앞당기는 한편 민간참여의 범위도 크게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고도화' 된다는 것은

“우라”며 경영혁신 붐을 주도한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제관료가 본 가장 바람직한 경영인으로 선정됐다.

이 회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규제정책은 국내기업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보다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에도 기업경영과 도시자본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그전까지 주위에서 나를 그룹총수 자리를 운송계 승계한 재벌2세로만 보아 안타까웠다”고 인간적 고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회장의 개인사정 때문에 서면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한국 최고 경영인으로 선정된 데 대해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히 재벌2세로서 제1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이견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측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이번 세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마감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 왔다.

나는 십여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나를 그룹의 총수 자리를 운송계 승계한 재벌 2세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내 주장이 그 누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6년 전 ‘제2창업’을 선언하고 삼성을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나의 결의도 이런 안타까움의 발로였다.

-삼성이 올해 재계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회장 경영철학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초일류경영이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세계를 바라보며 크게 생각하는 경영이다.

기업의 기본이란 최상의 서비스로 가장 좋게,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한차원 높여 자연과 인류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인류에 공헌하고 종업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덕적 차원의 경영을 해야 한다.

‘신경영’ 올안에 가시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앞서가자는 못할망정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따위의 이 회장 발언은 재계뿐 아니라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오는 기록제가 됐다. 올해 삼성그룹의 변화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올해 진행되었던 해외현지회의, 질경영선언 등은 신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은 이대로 가면 영원히 이류, 삼류로 전락해버린다는 위기의식을 다같이 공감하고, ‘나부터 변화한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갖도록 하는 데 애를 썼다.

따라서 신경영을 평가하기에 아직 이른 시기이며, 신경영의 실질적인 과실은 21세기에나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초일류기업의 실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94년은 신경영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삼성의 변화를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영을 가시화하겠다.

-라인스톱제와 조기출퇴근제의 기본 뜻은.

=조기출퇴근제는 시간활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찍 퇴근하면 자기개발에 시간을 쓰고 가정에도 충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보자는 데 원래 뜻이 있다.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삼성 혼자서 변화만으로는 안된다. 기업경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것만은 한시바삐 바뀌어야 한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맞서 싸우려면, 이제는 기업 혼자서는 안된다.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국민·정부·기업이 힘을 합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기업비판이 우세하고 결국은 이것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원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보다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국민이 시장경제 및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정부 구실은 그전 1천달러, 2천달러 때에는 엄연히 다르다. 저소득시절에는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과 성장전략 그리고 각

각 중요하다. 사람의 국제화, 조직의 국제화가 요체인 셈이다.

선진화·일류화의 관문인 국제화는 가장 먼저 국내의 국제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행정과 기업이 변하고 국민 개개인과 가정생활도 국제화되고 달라져야 한다. 국제화에 앞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여론과 국민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시대에 우리 기업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또 평소 농촌·농업문제에도 관심을 비쳤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린 우리 농촌과 농업의 살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업 농업참여 길터야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로 들어섰다.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세계의 대기업들과 생존을 다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대기업규제는 국제화시대에 요구하는 글로벌경영과 세계적인 우수 대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

기존의 농가를 기업형으로 전환시키거나 민간기업이 농업관련 기술혁신을 이루고 사업다각화에 참여토록 길을 터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확보가 농민만의 문제로 간과돼서는 안된다.

원전 확충 필수적 과제

-이 회장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쳐왔는데 그 근본 뜻은.

=국제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해서는 결코 기업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으며, 외국기업 국내유치도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를 영원한 2류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값싼 에너지원을 갖는 기업이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참여 구상을 갖고 있는지.

=기업의 모든 공장이나 앞서 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전기이다. 이 전기값을 얼마



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사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다.

자동차산업이 이렇게 국민경제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과보호해 줌으로 인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삼성이 승용차뿐만 아니라 조선·항공 등 중공업분야에서 일대약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가장 관심을 쏟는 21세기의 성장업종은.

=세계경쟁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21세기 수출유망업종으로는 역시 반도체·정보통신 등 전자·전기분야와 조선·자동차·항공 등 기계공업 분야가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삼성도 이 두 분야를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되도록 민간에 이양을

-아직까지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정부 규제완화와 추진속도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완화의 폭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력집중 완화보다는 경쟁력 높이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규제정책은 국내기업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 국제경쟁력 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체제를 가급적 민간에 넘기고, 행정·세제·재정·금융 등 각 부문에 걸친 전면개혁을 단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관계는.

=평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배에 탄 같은 경제행위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꾀하는 공존공영의 동반자 내지는 상호협력적인 부부관계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처음부터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진출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자체의 인력·자금·정보력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고품질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면 경영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사내 스포츠로 골프·야구·럭비를 권장하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골프는 룰과 에티켓·자율성, 야구는 스타플레이어와 캐처의 정신을, 럭비는 삼성인에 부족한 투지를 배우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스포츠 중 심판이 없는 것은 골프뿐이다. 골프에서의 룰은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자율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리/김현대 기자

정부·기업에서 가정까지 달라져야 행정규제가 초일류기업 출현 막아

다.

라인스톱제는 불량품을 절대로 소비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산공정에서 작업자가 공정을 스톱하고 개선해나가는 자율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품질을 선행적으로 관리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회장은 지금의 상황을 구한말과 비교하면서 위기의 시대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불과 1백년 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결국 우리의 나라를 지킬 만한 국력 즉 정치력·군사력·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무력 정쟁이 벌어진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에서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전자·자동차·조선의 핵심부품은 거의 일본에서 들여온다. 앞으로도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차치 일본의 경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중 규제도 필요했다. 그러나 1만달러 시대 경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이제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 경제와 경쟁의 룰을 바꾸고 새로운 룰의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떠들썩하게 외치고 있는 국제화도 사실은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에서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요즈음 들어서는 마치 국제화가 만병통치약이 돼버린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이 회장이 생각하는 국제화의 요체는.

=우루과이라운드는 세계무역의 기존질서를 일거에 바꿔놓는 획기적인 계기이다. 삼성이 1백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에 3백여개의 지점과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국제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화 목표는 해외지점·공장 확대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품질·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인재의 양성과 해외현지회의 우수인력 확보

다.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각 중진국의 룰을 벗어나려는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려면 정부·국민·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농민·기업이 농업을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함께 가져야 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우선은 종전의 가격지정정책에서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가격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유능한 농업경영체의 진입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없애야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자본의 농업 참여를 가능케 하는 농업의 대내적 개방이 필요하다. 민간의 연구개발성과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개발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체제가 필요하다. 쌀농사 중심에서 수출이 유망한 꽃, 특용작물로 작물구조 개선도 이뤄야 한다.

나 싸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 역시 국가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에너지원의 주류를 이뤄왔던 석유·가스는 보유자원의 한계로 아무때고 맘대로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리라운드 추진으로 앞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공해의 가장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추가건설 계획을 좀더 앞당기는 한편 민자참여의 범위도 크게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한단계 높일터

-올해 경제의 최대 논란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삼성의 승용차 참여 문제다. 삼성이 승용차에 꼭 진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데 21세기 국가 경제를 끌어 나갈 양대 산맥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산업의 경우 2백억달러 이상을 수출해 국가 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아직 30억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자동차가 총수출의 22%를